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확행’ 행정 펼치겠습니다”

반환점 민선 8기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직통 문자폰 주민들과 직접 소통
나눔·배려 ‘착한 도시 서구’ 실현
소상공인 위한 경영지원센터 개소

“주민 곁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김이강 서구청장은 남은 임기도 ‘주민의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겼다. “주민이 서구의 존재 이유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청장은 취임 당시 ‘서구가 바뀐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만큼, 서구 주민의 생활 곳곳에서 ‘변화’를 이끌고자 했다. “2년 전 약속인 ‘서구가 바뀌는 것’을 지키기 위

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것이 김청장의 설명이다. 그가 “주민 곁에서 함께하는 ‘내곁에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도 주민이 이같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김 청장은 구청장 직통 문자폰 ‘바로 문자하랑께’를 개통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이 손쉽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도도 올라갔다. 지난 2년 동안 ‘바로 문자하랑께’로 접수된 문자 메시지 민원은 하루 15~20건씩 총 5000여건에 달한다. 김 청장은 “처음 6개월 동안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빨리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졌지만, 최근에는 하루 5건씩 ‘민원을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등 칭찬 문자가 들어온다”며 “덕분에 직원들도 한층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상담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컨설팅을 실시했다니 친절지수가 2022년 평균 67.5점에서 올해 93.5점으로 크게 올랐다”고 했다. 김 청장은 서구 주민 한 명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도 꿈꾸고 있다.



최근 서구의 도시 브랜드로 ‘착한 도시 서구’를 선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구를 나눔과 배려, 이웃을 돌보는 나눔의 도시로 이끌어 착한 사람

이 행복하고, 착한 가게가 번창하고, 착한 기업이 성공하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착한” 서구 주민들의 힘이 돋보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복지 사업을 발굴하던 중 암환자가 서울의 병원까지 오가는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한 적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흔쾌히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해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수천만원을 선뜻 내어 준 엘리베이터 업체 사장도 있었지요. 이들의 도움으로 20여개 복지사업을 새로 발굴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서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힘썼다. 지난해 3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컨설팅·교육·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했으며, ‘장사의신 아카데미’를 개설해 경영 컨설팅을 해주기도 했다. 컨설팅 수요생들은 ‘나도 장사의신 멘토단’을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나섰다. 김 청장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 보니 1번이 교육, 2번이 공동체

였고 금전 지원은 3순위에 그쳤다”며 “컨설팅과 멘토-멘티 사업을 시작하니 참여 업체들도 매출이 오르고, 수강생들이 멘토로 나시고, 멘토 수당은 돌봄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해 나눔의 선순환을 이루는 등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붕괴 사고 이후 재시공을 위한 철거 작업이 한창인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김 청장은 “마지막 공정 해체 작업까지 철저히 감해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남은 2년 동안 ‘따뜻한’ 생활정부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역돌봄 체계를 튼튼히 하는 등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두겠다는 다짐이다. “지난 2년이 생활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신뢰를 쌓아 가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착한 도시’의 가치가 생활 속으로 녹아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구 주민들이 서구에 사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늘 곁에 함께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동의 꿈 이루는 행복세상 남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 친화 6대 전략 추진

광주시 남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남구는 최근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사진)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비차별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 등 4가지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고 광복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지자체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나선지 3년만에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환경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포식에는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남구의회의원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구정참여단,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동구정참여단에 활동 중인 아이들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받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및 현판을 남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남구는 지난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지난해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아동권리 옵무즈를 구성해 아

이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면서 아동구정참여단 구성원들과 함께 정책개발 및 홍보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했다. 남구는 유니세프 인증에 따라 ‘아동의 꿈을 이루는 도시’를 목표로 아동 친화 6대 영역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6대 영역은 놀이·문화, 참여·존중, 안전·보호, 보건·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등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산구, 맛과 멋과 흥이 있는 골목상권 ‘박차’

골목형 상점이 4곳으로 확대... 지역경제 새로운 활로 모색

광주시 광산구가 맛과 멋과 흥이 넘치는 머물고 싶은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광산구는 단단한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을 민선 8기 경제 분야 핵심 정책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초 월곡1동, 수안이지더움, 임방울거리 등 3개 상권을 추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골목상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은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광산구의 은누리상품권 가맹업소가 2022년 196개소에서 482개소로 증가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최근 올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임방울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제공>

광산구는 골목형 상점이 지정된 4개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이내로 더 완화해 경쟁력 있는 상권을 중심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해 광주중정역 세권 경쟁력 회복, 활성화를 지원하는 상권리네상스 사업도 3년 차를 맞아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광산로 일대를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뒷골목 경관개선, 하늘 조망설치 등 볼거리를 강화했다.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지대 5곳을 조성하고, 공유주방 1곳도 마련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는 그동안 ‘머물고 싶은 골목길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27개 골목상권에 2억 5000만원을 지원, 상인 스스로 발굴한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콘텐츠를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산 대표식당을 육성하기 위한 ‘골목상권 미식 브랜드 아카데미’는 그동안 7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밖에 광산구는 청년 골목상권 서포터즈 운영, 소상공인 395개 업체에 75억 6000만 원 규모 특별보증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 공직자 골목상권 이용을 촉진하는 상생 점심 여행 등 골목상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북구, 마을공동체 거점시설 ‘건국다복마루’ 조성...8월 개관식

광주시 북구가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을공동체 거점시설 ‘건국다복마루’를 조성했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건국다복마루 조성사업’이 최근 마무리됐다. 건국동은 최근 분동 등으로 주민 결집력이 다소 약화돼 있어 주민 소통 강화와 마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북구는 건국동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시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실시 설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약 5개월간 공

사를 진행해 마을공동체 거점시설 조성을 마쳤다. ‘건국다복마루’는 건국동 행정복지센터(본촌마을길 25·연면적 207.7㎡) 부속건물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2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나눔커뮤니티실, 문화나눔터 2층에는 공유주방, 야외테라스 등 마을주민 소통과 활동 편의를 위한 공간이 배치됐다. 한편 북구는 이달까지 건국다복마루 주민 맞이 준비를 마치고 오는 8월 ‘개관식’을 열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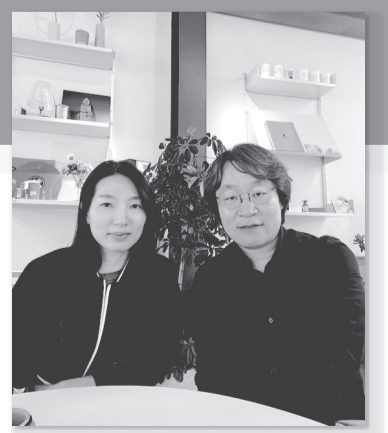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